

圖書館人の倫理宣言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倫理委員會 譯

1997年 10月 30日 宣布

圖書館人は、民族の記憶を傳承し、社會發展に寄與する圖書館の運營主體として、重い責任を擔っている。この責任は、われわれ圖書館人のあらゆる職業的行動の基盤に、批判的自省察と倫理的自覺が生きているとき、はじめて完遂されるものである。よって、われわれはここに、自らの誓いであると同時に國民に對する約束として、われわれが守るべき倫理的指標を掲げ、明らかにする。

1.【社會的責務】圖書館人は、人間の自由と尊嚴が保障される民主主義の發展に貢獻する。

ア 圖書館人は、憲法が保障する國民の知る權利の實現に貢獻する。

イ 圖書館人は、自己成長の意慾を鼓吹し、その努力を支援する。

ウ 圖書館人は、圖書館と利用者の自由を守り、情報アクセスの平等權を確立する。

エ 圖書館人は、成熟した知識司會を開く文化的先導者となる。

2.【自己成長】圖書館人は、不斷の自己開發を通し、歴史とともに成長し、文明とともに發展する。

ア 圖書館人は、自己改善を怠ってはならず、たゆみなく研究し、精進する。

イ 圖書館人は、自らの職務が、歴史を保存し、事實を傳達する行為であることを自覺する。

ウ 圖書館人は、社會の變化と利用者の要求に能動的に對處する能力を培う。

エ 圖書館人は、開拓者の精神で日常の難關を克服し、情熱と忍耐、そして勇氣と希望のなかで働く。

3.【専門性】圖書館人は、専門知識に精通し、自律性を堅持して専門職としての責任を完遂する。

ア 圖書館人は、自らの業務領域に関する専門知識と技術の習得に最善を盡くす。

イ 圖書館人は、専門家としての自律性を發揮し、自らの社會的地位を確保する。

ウ 圖書館人は、所屬する組織の立場が専門性の原則に相反するとき、専門職

としての信念に従って異議を提起すべき責任がある。

エ 図書館人は、専門職團體の重要性を認識し、組織活動に積極的に参加する。

4.【協力】図書館人は、協同力を強化し、組織運営の効率化を図る。

ア 図書館人は、まず、協力の基礎になる所属図書館の能力の伸張に努力する。

イ 図書館人は、図書館間の協力の体制を持続的に発展させる。

ウ 図書館人は、異なる社会機関と協力し、不断に活動領域を拡大する。

エ 図書館人は、自らの組織に不利益があっても、協力の意志を守る。

5.【奉仕】図書館人は、国民に献身する姿勢で奉仕し、図書館の眞の価値に対する社会的認識が得られるよう努める。

ア 図書館人は、利用者の多様な要求に対し、適切な専門的奉仕で応える。

イ 図書館人は、利用者の思想、年齢、性別、社会的地位などを理由に差別しない。

ウ 図書館人は、つれに親切で明るい態度で業務にのぞむ。

エ 図書館人は、図書館に対する社会の正しい認識が得られるよう努力する。

6.【資料】図書館人は、知識資源を選択、組織、保存し、自由な利用に供する最終責任者として、これを阻害するいかなる干渉も排除する。

ア 図書館人は、民族の文化遺産と社会的記憶を守る責任を負う。

イ 図書館人は、知識資源を選択するにあたって、一切の偏見や干渉、または誘惑から自由でなければならない。

ウ 図書館人は、知識資源を組織化するにあたって、標準化を指向する。

エ 図書館人は、利用者に関する個人情報を守り、その公開を強要されない。

7.【品位】図書館人は、公益機関の従事者として、その品位を堅持する。

ア 図書館人は、つれに専門職としての矜持をもち、業務を遂行する。

イ 図書館人は、つれに誠實で毅然として態度を失わない。

ウ 図書館人は、業務と關聯して正當でないいかなる利益も圖らない。

エ 図書館人は、職業的倫理規範を誠實に守る。

아래의 자료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의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위원회'(FAIFE, committee for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가 이사회 심의를 받아 그 문안을 확정하여 1999년 3월 25일 발표한 것을 우리협회 도서관윤리위원회에서 번역한 것으로, 도서관문화 3.4월호 42쪽에 게재('도서관문화' 편집실 번역)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는 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자유를 지지하고 옹호하며 촉진한다.

IFLA는 인간이 지식과 창조적 사상, 그리고 지적 활동의 표현물에 접근하고,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갖고 있음을 선언한다.

IFLA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동일한 원칙의 양면임을 확신한다. '알 권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한 기본 조건이며,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정보접근의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IFLA는 지적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도서관과 정보 전문직의 핵심적인 책무임을 주장한다.

IFLA는 이에 따라 도서관과 도서관 직원들이 지적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접근,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IFLA는 회원들이 이러한 원칙을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 도서관은 정보와 사상, 그리고 창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도서관은 지식과 사상, 그리고 문화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의 평생학습, 자율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문화적 발전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도서관은 지적자유와 발전과 유지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지원한다.
- 도서관은 지식과 지적활동의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촉진시킬 책임이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보존, 활용하게 한다.
- 도서관은 자료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이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관점이 아닌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서관은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 조직, 배포하며 어떠한 형태의 검열에도 반대한다.
-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들이 자료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종, 신념, 성별, 연령, 그 외의 어떠한 다른 이유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 도서관 이용자는 사생활 보호와 익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서를 비롯 한 도서관 직원들은 이용자의 신원이나 그들이 이용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공공재원으로 유지되며 공중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지적자유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이와 같은 도서관의 사서와 직원들은 이상의 원칙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사서와 도서관 전문직원은 고용주와 이용자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의 수행이 상충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책임이 우선한다.

이 선언문은 IFLA의 FAIFE(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위원회)가 작성하여, 1999년 3월 25일 IFLA 이사회 심의를 받은 것임.

아래의 자료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이 2000년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채택한 것을 우리 협회 저작권위원회에서 번역한 것으로, 원문을 함께 게재하였음.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에 대한 IFLA의 입장

IFLA는 도서관과 정보 업무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조정하고, 도서관과 정보업무의 모든 부분에 관한 정보의 전 세계적 배포와 각종 회의와 훈련을 조직하는 일을 담당하는 국제적 비정부기구(NGO)이다.

국제적인 저작권 논쟁에 있어서 IFLA는 전 세계의 도서관과 이용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에 영향을 준다.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도서관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반 조건들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저작권법은 도서관의 정보검색을 위한 항해 에이전트적 활동과 효과적인 자료의 축적과 보존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IFLA는 국제적인 저작권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균형 잡힌 저작권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사서와 정보 전문가들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정보와 아이디어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또한 저자와 저작권자가 그들의 지적재산으로 공정한 경제적 보상을 얻고자 하는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 저작물에의 효과적인 접근은 저작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IFLA는 창의성과 혁신, 연구, 교육, 학습을 조장하기 위한 (저작물에의) 합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권리소유자의 이익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균형잡힌 저작권법을 지지한다.

IFLA는 저작권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을 지원하고, 도서관이 급증하는 현지 및 원격지의 전자정보원에 대한 용이한 접근은 물론 통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사서와 정보 전문가들은 저작권에 대한 존중심을 촉진하고, 인쇄물 및 디지털 저작권 환경에서 저작권의 침해 행위와 불공정한 이용, 무단 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작권 저작물을 보호해야 한다. 도서관들은 오랫동안 저작권법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교육시키며, 이용 허락을 받도록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다.

IFLA는 저작권의 과잉보호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을 불합리하게 제한함으로써 민주적 전통을 위협하고 사회 정의의 원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주장한다. 만일 저작권이 너무 강하게 보호된다면, 경쟁과 혁신은 제한되고 창의성은 억압될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형식의 정보가 점점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은 정보에의 접근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전혀 없는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이들에게도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정보기술이 사회를 정보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더욱 계층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

고 있다. 만약에 저작물への 합리적인 접근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지속될 수 없다면, 정보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접근을 거부하는 더 큰 장벽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도서관은 정보화사회에서 모든 이에게 접근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국가적, 국제적 네트워크와 정보서비스의 완벽한 기능화는 정보에의 접근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저작물의 복제물을 구매하여 장서에 포함시키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접근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만약 미래에 디지털 형식으로 된 정보에의 모든 접근과 이용이 유료화 된다면, 도서관이 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접근 제공 능력이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IFLA는 권리 소유자와 이용자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천명한다.

디지털이라고 다르지 않다.

베른협약은 그 조약 당사국들에게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996년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회원국들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해 두 가지 조약을 채택했다. 기존의 예외와 제한사항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존속시키고 확장할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WIPO의 회원국들은 “디지털은 다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약 당사자들에게는 그러한 제한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여전히 존속 확장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예외 조항들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IFLA는 도서관과 시민들에게 공공의 이익과 교육, 연구 같은 공정사용에 합치하는 목적의 경우 무료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오로지 지불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보화사회의 혜택이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사이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서 저작권법에는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또는 학습 장애자들을 불리하게 하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합리적인 접근으로 인정해야 한다.

1. 당사국의 국내 저작권 입법에 있어서, 베른협약에서 허용되고 WIPO 조약에 의해 확약된 저작권 및 인접권에 대한 예외조항은 전자적 형태나 인쇄형태의 정보에서 동등하게 적용되어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개정되어야 한다.
2. 이 조항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복제에 대해서는 관리상 간단한 요금지불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저작권 저작물의 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또는 기술적인 복제행위는 복제권의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4.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 모든 도서관 이용자들이 비용부담이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은 :
 -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훑어보는 것 ;
 - 저작권이 있다고 공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적으로 현지나 원격지에서 읽고 듣고 보는 것 ;
 - 개인적, 교육적 및 연구의 용도로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저작물의 적정 분량을 도서관과 정보 담당자가 이용자를 위해 복제해 주는 것 ;

정보 자원 공유

자원 공유는 교육, 민주주의, 경제 성장, 건강과 복지 그리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원 공유는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도서관 또는 국가가 이용할 수 없는 광범위한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자원 공유는 비용을 줄이려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용 가능성을 넓혀주려는 것이다.

5. 조사, 연구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의 보호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으로 허용되어야만 한다.

대여

비상업적인 공공 대여는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에서 통제해 온 활동이 아니다. 공공 대여는 문화 및 교육에 필수적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패키징된 모든 정보는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 대여품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대여는 다시 판매용으로 포장된 정보의 마케팅에 도움이 되며 판매를 촉진한다. 실제로 도서관은 모든 형태의 정보 판매를 돕는 촉매제이다. 따라서 어떤 법이나 계약으로 대여를 제한하는 것은 도서관 그 자체뿐 아니라 저작권자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6. 물리적 형태가 디지털로 발행된 자료를(예 : CD-ROM 등) 도서관이 대여하는 것이 법률로 제재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예컨대 이용 허락 협정 내의 계약 조항이 도서관과 정보 담당자에 의한 전자 자원의 합리적 대여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

보존과 유지

도서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한다. 사실상 정보와 문화를 보존하는 책임은 도서관과 정보 전문가들에 달려 있다. 저작권법이 보존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에 도서관이 의존하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8. 법률은 도서관과 문서보관소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료를 보존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9. 법률은 또한 전자 매체의 법적인 납본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

계약과 복제 방지 시스템

저작권 보호는 못하도록 막을 것이 아니라 이용과 창의성을 북돋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권리 소유자에게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사항을 무효화시키고 국제·국내 저작권법에 규정된 균형을 왜곡시킬 수 있는 기술적 또는 계약적 수단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이용 허락 협정은 저작권법에 합치되어야만 하

며,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정보 이용을 통제하는 것보다 정보에 접근하게 할 때 이용이 늘어난다. 실제로 기술적 보호 장치에 의한 지나친 통제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온 바 있다. 침해가 아닌 행위를 위한 기술적 장치의 우회는 가능해야 한다.

10. 국내 저작권은 이용자에 의해 허락조건에 대한 협상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저작권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성립된 저작권법에 내포되어 있는 예외조항과 제한을 제한하거나 무효화하는 어떠한 이용허락조건을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

11. 국내 저작권법은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자의 권리와 적법하고, 침해 목적이 아닌 그러한 장치를 우회하려는 이용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비록 도서관이 저작권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침해 책임은 궁극적으로 침해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12.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승낙을 실제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의 책임에 관한 명백한 한계를 밝혀야 한다.

2000년 8월 IFLA 이사회에서 승인함.

(번역 담당 : 윤선영, 박승진 · 감수 : 이두영(한국도서관협회장))

● 원문 ●

IFLA Position on Copy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IFLA is an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NGO) which exists to undertake, support and coordinate research and studies, and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all aspec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work world wide and to organise meetings and training in this field.

In the international copyright debate, IFLA represents the interests of the world's libraries and their users. Copyright law impacts on most of what libraries do. It affects the services that libraries can provide to their users, and the conditions on which they can provide access to copyright materials. It affects the way in which libraries can act as navigational agents and undertake effective archiving and preservation activities. It is for these reasons that IFLA participates in the international copyright debate.

Balanced Copyright is for everybody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recognise, and are committed to support the needs of their patrons to gain access to copyright works and the information and ideas they contain. They also respect the needs of authors and copyright owners to obtain a fair economic return on their intellectual property. Effective access is essential in achieving copyright's objectives. IFLA supports balanced copyright law that promotes the advancement of society as a whole by giving strong and effective protection for the interests of rightsholders as well as reasonable access in order to encourage creativity, innovation, research, education and learning.

IFLA supports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copyright and recognises that libraries have a crucial role to play in controlling as well as facilitating access to the increasing number of local and remote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promote respect for copyright and actively defend copyright works against piracy, unfair use and unauthorised exploitation, in both the print and the digital environment. Libraries have long acknowledged that they have a role in informing and educating users about the importance of copyright law and in encouraging compliance.

However, IFLA maintains that overprotection of copyright could threaten democratic traditions and impact on social justice principles by unreasonably restrict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If copyright protection is too strong, competition and innovation is restricted and creativity is stifl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Information is increasingly being produced in digital format. New communications technologies bring unprecedented opportunities for improv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access for those disadvantaged by distance or economic circumstances. However, we now know that technology also has the potential to further stratify society into the information-haves and the information-have-nots. If reasonable access to copyright works is not maintain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a further barrier will be erected which will deny access to those who cannot afford to pay.

Libraries will continue to play a critical role in ensuring access for all in the information society. Properly function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re critical to the provision of access to information. Traditionally, libraries have been able to provide reasonable access to the purchased copies of copyright works held in their collections. However, if in future all access and use of information in digital format becomes subject to payment, a library's ability to

provide access to its users will be severely restricted. In order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rights holders and users, IFLA has developed the following statement of principles.

Digital is not Different

The Berne Convention permits members of the Berne Union to grant exceptions in certain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In 1996, the members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dopted two treaties to update copyright law for the digital environment. In confirming that existing exceptions and limitations can be carried forward and extend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WIPO countries rejected the claim that “digital is different”. Contracting parties are allowed to carry forward and extend such limitation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create new exceptions where appropriate.

IFLA maintains that unless libraries and citizens are granted exceptions which allow access and use without payment for purposes which are in the public interest and in line with fair practice such as education and research, there is a danger that only those who can afford to pay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is will lead to an even greater divide between the information rich and the information poor. Further,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in copyright laws against visually, aurally or learning disabled persons. Reformatting of material to make it accessible should not be considered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should be considered as reasonable access.

1. In national copyright legislation, exceptions to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llowed in the Berne Convention and endorsed by the WIPO treaties should be revised if necessary to ensure that permitted uses apply equally to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 and to information in print.
2. For copying over and above these provisions there should be administratively simple payment schemes.
3. Temporary or technical copies which are incidental to the use of copyright material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reproduction right.
4. For works in digital format, without incurring a charge or seeking permission all users of a library should be able to:
 - browse publicly available copyright material;
 - read, listen to, or view publicly marketed copyright material privately, on site or remotely;
 - copy, or have copied for them by library and information staff a reasonable proportion of a digital work in copyright for personal, educational or research use.

Information resource sharing

Resource sharing plays a crucial role in education, democracy, economic growth, health and welfare and personal development. It facilitates access to a wide range of information, which would not otherwise be available to the user, library or country requesting it. Resource sharing is not a mechanism to reduce costs but to expand availability to those who, for economic, technical or social reasons cannot have access to the information directly.

5. Providing access to a digital format of a protected work to a user for a legitimate purpose such as research or study should be a permitted act under copyright law.

Lending

Non-commercial public lending is not an activity that has traditionally been controlled by copyright law. Public lending is essential to culture and education. It should be available to all. Information packaged in all formats has and will become part of the lending stock. Lending in turn assists in the marketing of commercially packaged information and encourages sales. Libraries are, in effect, catalysts for the sale of information in all of its formats. Therefore, any legal or contractual restraints put on lending would be to the disadvantage of rights holders as well as to the libraries themselves.

6. The lending of published physical format digital materials (for example CD-ROMs) by libraries should not be restricted by legislation.
7. Contractual provisions, for example within licensing agreements, should not override reasonable lending of electronic resources by library and information staff.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Libraries collect and preserve information. In fact, the responsibility for preserving information and culture belongs to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 Copyright law should not prevent libraries from relying on new technology to improve preservation techniques.

8. Legislation should give libraries and archives permission to convert copyright protected materials into digital format for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related purposes.
9. Legislation should also cover the legal deposit of electronic media.

Contracts and Copy Protection Systems

Copyright protection should encourage not inhibit, use and creativity. Copyright law should not give rightsholders the power to use technological or contractual measures to override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copyright and distort the balance set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pyright legislation. Licensing agreements should complement copyright legislation, not replace it. Access to information, rather than control of information, increases use. Indeed studies have shown that too much control, in the form of technical protection, is counterproductive.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for non-infringing activities should be enabled.

10. National copyright legislation should render invalid any terms of a licence that override exceptions or limitations embodied in copyright law where the licence is established unilaterally by the rightsholders without the opportunity for negotiation of the terms of the licence by the user.
11. National copyright laws should aim for a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copyright owners to protect their interests through technical means and the rights of users to circumvent such measures for legitimate, noninfringing purposes.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Although, libraries as intermediarie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ensuring compliance with copyright law, liability should ultimately rest with the infringer.

12. Copyright law should enunciate clear limitations on liability of third parties in circumstances where compliance cannot practically or reasonably be enforced.

Approved by the IFLA Executive Board

August 2000